

88년중엔 반드시 支店 연다

개점 7주년 앞둔 교보문고의 愼東幸사장

敎保文庫를 처음 찾는 사람은 두번 놀란다. 그 광대한 규모와 국제수준의 시설환경에 놀라고, 몸싸움을 벌여야 할 정도로 붐비는 人波에 놀란다. 매장 면적 1,300평에 도서보유량 100만권이면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큰 소리칠 만하다.

작년 11월 1일 제5대째 대표이사로 취임한 愼東幸사장(56)은 일과의 대부분을 책과 사람의 숲 속에서 서성대며 보낸다. 그 많은 책과 인파를 볼 때마다 짙은 감동에 젖는다는 그는, 이곳의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重責임을 거듭거듭 절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장직을 맡은 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출판인도 만나고, 문화계 인사들도 만나고, 朴奉植 전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 인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저희 교보문고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역량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라는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너무들 기대가 컸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에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아물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던가. 작년에 있었던 지방 6대 도시 支店개설 파동은 87년도 출판계 10대 뉴스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서점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그렇듯 떠들썩했던 적은 일찌기 없었다는 사실이, 교보문고의 사회적 비중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달까.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8년중에는 반드시 문을 열 계획으로, 전국서적상연합회칙이나 중소서적상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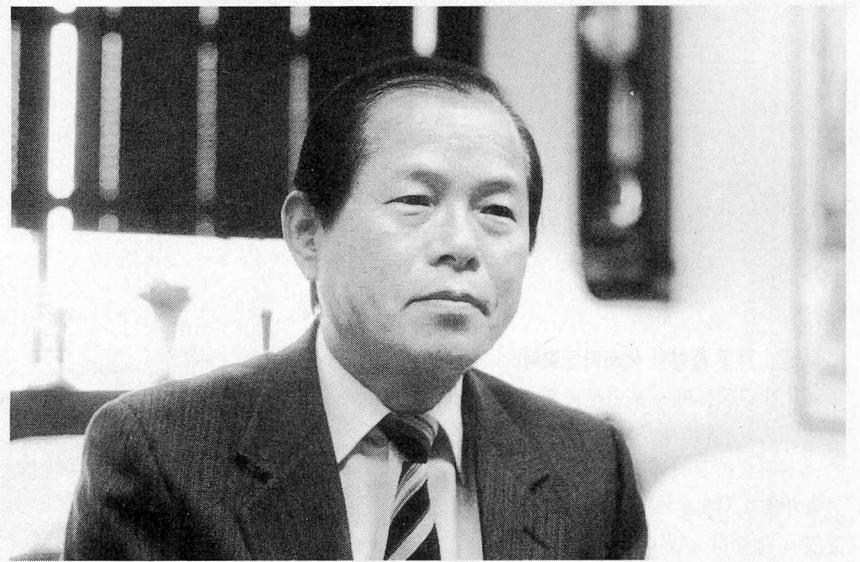
책위원회 측과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군소 서점들과의 공존을 위해 교과서나 잡지 등 일부 취급품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88년중’을 강조하면서도,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올림픽이 끝난 뒤에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愼사장은 지점 개설이 가져올 광범한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각종 도서의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공급에 의한 ‘문화의 소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지점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전시회·강연회·교양강좌 등을 수시 개최함으로써 지방문화의 발전과 독서인구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이 愼사장의 포부다. 그뿐 아니라 교보문고 지점의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 체제는, 그 지역의 군소서점은 물론 모든 점책업소의 전반적인 시설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는 일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愼사장은 장담한다.

그러나 현재 교보문고는 덩치가 큰 만큼 그에 따른 고민도 없지 않다. 매일 출입하는 고객이 자그마치 평일에 3~4만명, 주말이면 4~5만명을 오르내리다 보니, 특히 러시아워에는 발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혼잡스럽다. 게다가 서가의 길이만도 연24km에 이르다보니, 280명이나 되는 종업원의 일손이 오히려 달리고 있다. 그러니 고객이고 종업원이고 간에 짜증스러운 때가 많다. 매장을 좀더 넓힐 수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개점(81년 5월1일) 이후 몇차례



愼東幸사장

愼사장은 지방 지점 개설이

가져올 광범한 파급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교보문고 지점의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체제가 그 지역의

점책업소 전반에

일대 자극제가 되리라고

장담한다.

단계적으로 매장을 확장해 왔는데, 이젠 포화 상태입니다. 앞으로 빌딩입주자들의 이용시설을 정비,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만, 더 이상의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객의 가장 큰 불평은 ‘책 찾기가 어렵다’는 것. 매장 안의 각종 안내표지나 유도간판이 미흡하다는 것도 그 이유이지만, 그보다도 도서의 분류 자체가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위에 종업원들의 상품지식도 서툴다는 것

이 고객들의 지적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장이 넓다보니 운신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도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식 분류법(십진분류법)을 따르고 있지만, 역시 상품이기에 때문에 책의 성격이나 판매성향, 대상고객층에 따라 여러가지 편법을 쓰다보니 다소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원들의 組別 책임운영제를 도입, 판매원 각자가 책의 소재를 완전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商大 출신으로 여러 기업을 거쳐 교보빌딩관리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愼사장은, 교보문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 1년 남짓 상임감사로 修業을 쌓았기 때문인지 ‘서점경영학’에 일가견을 펼쳐 보인다. 올 가을의 올림픽을 앞두고 교보문고는 외국인 VIP코스도 더욱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어서, 여러모로 그의 운영 솜씨가 기대된다.

한가지, 교보문고는 독자서비스의 일환으로 베스트셀러 자동안내전화(702-7500)를 설치, 그때그때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 목록을 알려주고 있다. 서점으로서의 최초의 시도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다만 아마추어의 녹음이어서 의미전달이 잘 안되는 게 흠.

8 첫돌박이 우리아기

이은화·임희옥 옮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가 영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다루었다.

신국판·272면·값 3,200원

미래를 위한 자녀 양육서

- 1 영아기 - 이렇게 기른다.
- 2 세상부터 이렇게 이끈다
- 3 첫아기 2년간
- 4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아이들
- 5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 6 이동기를 위한 성교육
- 7 청소년기를 위한 성교육
- 9 자녀문제, 대담해 드립니다

※ 계속 나옵니다

도서출판 창지사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경우·이혜상 공저

- 최초의 본격 유아 기독교 교육서
- 기독교 교육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구성
- 개념 중심의 52개 활동 제시
- 일반 유아교육 활동방법 총망라

크라운판·400면·값 6,200원

도서출판 창지사 서울·종로구 경운동 64-4 T: 735-3858 / 739-7704

經濟學選書 7

資本主義의 理解

신국판 / 334면 / 값 4,000원

金大煥 編著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면서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思考를 규정하는 社會組織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학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比峰出版社

서울시 중구 신당동 292-46, 전화 234-3365·3378

經濟學叢書

經濟學原論

신국판·양장 / 702면 / 값 8,000원

福岡正夫 原著 丁炳然 解譯

[經濟原論] 書는, 一般人에게는 경제의 기본틀을 명쾌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하고, 經濟學徒에게는 경제학의 전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살아있는 경제현상을 일관된 체계하에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比峰出版社

서울시 중구 신당동 292-46, 전화 234-3365·3378